

서아프리카 도시 ‘아비장’에 대한 넥서스 인문학적 연구*

임기대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아비장의 ‘넥서스’ 인문학
 - 2.1. 중심주의와 이분법적 담론의 한계
 - 2.2. 아쉬 아민과 스콜론 부부의 분석
3. 아비장 넥서스의 다층적 분석
 - 3.1. 문화 넥서스
 - 3.2. 이주 넥서스
 - 3.3. 권력 넥서스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영토 중심주의와 이분법적 구조주의를 극복하고 글로벌 유동성의 결절 공간을 탐구하고자 ‘넥서스 인문학’을 제안한다. 기존 공간 이론이 들뢰즈의 ‘리좀’이나 ‘네트워크’ 개념을 평평한 수평적 흐름으로만 수용했던 한계를 지적하며, 아쉬 아민의 ‘관계적 장소성’과 스콜론 부부의 ‘담론적 넥서스 분석’을 결합하여, 2019-2026년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현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아프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1003729)

리카 거점 도시 아버장을 다음과 같이 다층적으로 분석했다.

첫째, 문화 넥서스에서는 거리 언어 '누시'와 대중문화 '쿠페-데칼레'가 식민어를 전복하고 내전의 트라우마를 유희로 재의미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성임을 규명했다. 둘째, 이주 넥서스에서는 '이부와리테' 담론 속에서 아자메의 부르키나베 하층 노동과 마르코리의 레바논계 상층 자본이 유발하는 비대칭적 공간 분절을 실증했다. 셋째, 권력 넥서스에서는 중국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프랑스의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중첩된 '모바일 판옵티콘' 통제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버장의 MZ세대는 이러한 다층적 억압 속에서도 핀테크 플랫폼의 교차 활용과 누시 기반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지배 알고리즘을 가로채고 변형하는 포스트식민적 생존 주체이자 '브로커(broker)'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는 아버장을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탈피한 역동적인 전위 공간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넥서스 인문학, 아버장, 중심주의, 문화 넥서스, 이주 넥서스, 권력 넥서스, 브로커

1. 서론

21세기 들어 세계는 이동과 연결, 디지털 네트워크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인간의 삶은 더 이상 단일 영토와 국민국가 안에 고정되지 않으며, 이동과 디아스포라, 플랫폼과 글로벌 도시의 다층적 교차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영토 중심 인문학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 담론 이후의 인문학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는 단순히 수평적 네트워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네트워크가 연결의 구조와 확산 경로를 포착한다면, 실제 세계의 역사적 변화와 권력의 충돌, 문화적 생성은 특정한 '결절'(結節) 공간에서 비대칭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해외 지역 인문학은 평평한 흐름 자체보다, 이동과 권력, 문화와 지정학적 흐름이 교차하면서도 두터운 밀도를 형성하는 '공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www.kci.go.kr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넥서스 인문학’(Nexus Humanities)¹⁾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영토와 중심의 고정된 질서를 넘어, 이동과 관계, 교차 속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와 주체, 그리고 세계의 결절 공간을 탐구하려는 학제적 시도이다. 글로벌 흐름이 맞부딪히는 접경과 거점 도시들은 더 이상 단순한 주변부가 아니라 세계 체제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결절점이며, 바로 이러한 공간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현대성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넥서스 인문학’은 현지 지역에 대한 심층 깊은 이해와 담론적 층위의 병행 연구가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충돌해 밀도를 형성하는 ‘비대칭적 결절’이자 주체의 실천을 통해 매순간 새롭게 재편되는 형성 과정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세계 지정학과 자본, 문화의 넥서스를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서아프리카의 거점 도시 아비장(Abidjan)²⁾에 주목한다. 오늘날 아비장은 서구 중심적 네트워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종착지가 아니다. 이곳은 사헬(Sahel)³⁾ 지역의 안보 위기가 낳은 비자발적 이주민과 초국가적 자본을 전 레바논계 디아스포라가 격렬하게 격돌하는 ‘이주 넥서스’, 지배 언어인 프랑스어를 전복하는 거리 언어 ‘누시’(Nouchi)와 파리 디아스포라를 매개로 발흥한 ‘쿠페-데칼레’(Coupé-Décalé)가 분출하는 ‘문화 넥서스’, 그리고 중국의 하드웨어 인프라와 프랑스의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중첩되는 ‘권력·디지털 넥서스’가 단일 시공간에 중첩되는 대표적인 권력의 결절점이다. 특히 아비장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청년 세대는 이러한 다층적 억압의 틈새를 전용하는 능동적 생존 주체이자 브로커(broker)⁴⁾로 등장하고 있다.

1) ‘넥서스 인문학’이란 용어는 2025년 인문한국(HK)3.0컨소시엄 연구 사업에 선정된 연구과제의 주제이다.

2) 코트디부아르의 실질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경제수도’이다. 각종 국제기구가 있으며, 인구는 약 630만 명이다.

3)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반건조 스텝 기후 지대이다. 아랍어로 ‘가장자리’를 뜻하며, 서쪽의 세네갈에서 동쪽의 에리트레아까지를 포함하는 국가들이 있다(임기대 2025).

4) 아킬레 음베펜(Achille Mbembe)가 사용한 용어이다. ‘브로커’는 탈식민 이후 사회에서 국가의 공적 권력이 약화되거나 사유화된 상황 속에서, 그 빈틈을 차지해 자원과 폭력을 통제하고 이권을 획득하는 새로운 대리인 또는 권력 집단을 뜻한다(Achille Mbembe 2000).

이러한 아비장의 다층적 결절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 지리학자 아쉬 아민(Ash Amin)의 ‘관계적 장소성’(relational place)⁵⁾과 론·수잔 스콜론(Ron & Suzie Scollon) 부부의 ‘담론적 넥서스 분석’(Nexus Analysis)⁶⁾을 접목할 것이다. 아민의 이론을 통해 아비장이 가진 글로벌 흐름의 공간적 두께와 비대칭적 강도를 포착하는 동시에, 스콜론 부부가 제시한 세 가지 축—역사적 신체, 상호작용 질서, 담론의 유통—을 통해 결절 공간 내부 주체들의 실천적 문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비장이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이질적인 이주·문화·권력의 흐름은 어떻게 비대칭적 매듭을 짓는가? 둘째, 아비장의 청년 주체들은 글로벌 자본주의와 식민적 유산이 깔아놓은 ‘알고리즘 통제’⁷⁾ 속에서 어떻게 대안적인 주체성과 문화적 변이를 생산해내고 있는가?

본 연구는 2019년 말리와 알제리 사하라 접경 지역, 2024년 튀니지와 니제르 접경 지역 현지 조사, 2025년 세네갈, 모로코 해안 도시 등의 프랑스어권 국가 현지 조사를 거쳐,⁸⁾ 2026년 2월 수행한 아비장 1차 현지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26년 7월과 8월로 예정된 아비장 2차 심층 현지 조사를 앞두고 수행된 이론적·실증적 시론(試論)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비록 필드워크의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나, 본 논문을 기반으로 추후 서아프리카는 물론 프랑스어권 북아프리카 도시 간의 유기적 흐름과 결절 구조를 추적하는 후속 연구를 지속해 갈 것이다.

5) 도시지리학자 아쉬 아민(Ash Amin)은 도시를 고정된 영토가 아닌 초국가적 흐름과 관계들이 교차하며 격렬하게 충돌하는 ‘관계적 장소(relational place)’로 재정의한 바 있다(Amin and Thrift 2002; Amin 2004).

6) 스콜론 부부는 거대 담론이나 초국적 흐름이 인간의 미시적 실천과 결합하는 결정적 순간을 ‘실천의 넥서스’(nexus of practice)로 명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역사적 신체, 상호작용 질서, 담론의 유통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하였다(Scollon, R., & Scollon, S. W. 2004).

7) 여기에서 ‘알고리즘 통제’란 말은 글로벌 플랫폼 자본이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평점, 동선 추적 등을 통해 포스트식민 주체의 노동과 신체를 규율하는 통제 양식을 의미한다.

8) 정확히는 알제리와 니제르의 국경 도시 타만라세트(Tamanrasset)이며, 튀니지의 경우 최대 난민 지역 스팍스(Sfax), 세네갈의 경우 음부르(M'bour)항구 도시, 모로코의 경우 카사블랑카의 세네갈 구역이 해당된다.

2. 아비장의 ‘텍스트’ 인문학

2.1. 중심주의와 이분법적 담론의 한계

서구의 학문 체계는 오랫동안 ‘중심’(center)이라는 지배적 패러다임을 통해 세계를 설명하고 재단해 왔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국가주의와 제국주의, 그리고 근대 유럽 중심적 세계 체제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인문·사회과학은 세계를 철저히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파악해 왔다. 특히 서구 근대 학문의 정점에 서 있는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세계를 상호 배제적인 이항 대립⁹⁾의 체계로 범주화함으로써 이런 위계질서를 공고히 했다. 구조주의적 사유 안에서도 세계는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근대와 전통, 발전과 후진성이라는 고정된 대립 쌍으로 구조화되며, 이 구조를 통제하는 숨겨진 ‘중심’에 의해 주변부는 언제나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했다. 이는 엄격한 학문성을 추구한다는 긍정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화화의 기저에 구조적 위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이후 본격화된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사유와 글로벌 이주 및 디아스포라 연구는 이러한 구조주의적 이분법과 경직된 체계성에 전면적인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경계를 넘나드는 인간의 이주와 다층적인 디아스포라 경험은, 세계가 더 이상 고정되거나 영토화된 구조적 범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주민의 삶은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경계 그 자체를 흐리며, 구조주의가 상정한 고정판을 탈피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구조의 해체를 넘어, 세계 곳곳에 저마다의 역사성과 주체성을 지닌 복수의 중심들(multi-centrisms)이 움직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 2003)에서 제시된 ‘리좀’(rhizome)과 같은 개념은 구조주

9) 예를 들어 소쉬르의 랑그/parole, 공시대와 통시대 등을 이항 대립시킴으로써 언어학이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념이 평등하지 않고 위계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언어능력과 언어수행 개념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구조주의 틀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의 닫힌 체계와 중심주의적 세계관을 비판하는 강력한 사유 도구가 되었다.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관계 구조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또한 정보, 자본, 문화의 초국가적 확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며 최근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를 통해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분석 도구로 자리 잡았다(김환석 2024). 그러나 이런 사유의 역동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리학 및 사회과학 담론은 들뢰즈가 강조했던 ‘강도성’(intensity)나 ‘지층화’(stratum)의 역학을 배제한 채, 리즘과 네트워크 개념을 그저 평평한 탈영토적 유동성이나 매끄러운 연결망 확장으로 수용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수평적이라는 연결의 ‘경로’에만 몰두하느라 흐름이 정체되고 부딪히며 응결된 ‘두께’는 분석하지 못한 것이다.¹⁰⁾

이처럼 개념 본연의 강도적 역동성을 소거한 채 초국가적 연결망의 확장만을 추구해 온 기존 공간 이론의 방법론적 한계 속에서 제시하는 대안적 개념이 바로 ‘넥서스’(Nexus)이다. 넥서스적 접근은 기존 공간 이론가들이 간과한 사회적·공간적 교차점 자체를 분석의 주안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넥서스는 단순히 평평하게 펼쳐진 관계망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관계들이 압축되어 나타나는 ‘공간의 결절(結節)’이다. 이는 들뢰즈(2003)가 말한 강도적 응축과 ‘특이성’이 구체적인 도시 지리적 좌표 위에서 어떻게 역사적·언어적 실천으로 현실화되는지를 포착하려는 시도이며, 공간을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에너지가 유입되고 재편되는 역동적인 ‘되기’(Becoming) 과정으로 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넥서스적 방법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지리학자 아쉬 아민과 나이젤 스리프트(Nigel Thrift)의 공간 이론, 그리고 론·스콜론 부부의 담론적 넥서스 분석(Nexus Analysis)을 접목하여, 아비장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 현지 조사 연구 내용과 인문학적 담론을 결부하여 도시 아비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10) 이런 의미에서 들뢰즈적 사유는 구조주의의 랑그 체계 혹은 문법 체계를 비판하면서도 역동적인 ‘구조’, 일시적인 ‘구조’를 체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토화, 탈영토화, 재영토화 등의 개념들은 이를 설명해주는 몇몇 용어들이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2003).

2.2. 아쉬 아민과 스콜론 부부의 분석

비판적 도시지리학자 아쉬 아민(Ash Amin)은 현대 사회의 공간을 단순히 고정된 영토나 경계로 파악하는 전통적 지리학을 넘어, 끊임없는 흐름과 관계들의 결합으로 재정의했다. 특히 그는 나이젤 스리프트(Nigel Thrift)와의 공저(2002)를 통해 들뢰즈의 리좀적 사유와 관계적 전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모든 공간이 무차별하게 평평한 흐름으로만 수렴된다는 기존 지리학계의 극단적 수평주의를 명확히 경계했다. 아민에 따르면, 현대의 대도시와 핵심 지리적 거점들은 글로벌한 이동성이 아무런 흔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진공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이질적인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네트워크의 선들이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얹히며 두터운 밀도를 형성하는 '관계적 장소'(relational place), 즉 글로벌 흐름의 결절점과도 같은 것이다.

이러한 관계적 공간 담론을 아프리카 대륙에 적용할 때, 아비장은 더 이상 서구의 발전을 보조하거나 문명화의 혜택을 기다리는 정체된 '주변부'가 아니라, 현대 세계 체제의 비대칭적 에너지가 가장 압축적으로 폭발하는 결절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목격되는 폭발적인 도시화와 대규모 인구 이동은 단순히 인구학적 통계의 변화를 넘어선다. 아비장과 같은 거대 도시는 글로벌 자본의 흐름, 서아프리카는 물론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초국가적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와 자금의 흐름, 그리고 프랑스와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각축이 단일 시공간에 중첩되는 대표적인 지리적 넥서스 공간인 것이다.

아민의 사유가 보여주듯, 넥서스 공간으로서 아비장은 고정된 완성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넥서스가 되어가는(becoming a nexus) 형성 과정에 있다. 예를 들어, 사하라 사막의 횡단 이주 경로와 서아프리카 해안의 글로벌 관문은 단순한 지리적 통로가 아니다.¹¹⁾ 그곳은 쿠데타 벨트(coup d'état belt)¹²⁾와 초국적 이주민들의 생존 전략, 지역의 법적 규제, 글로벌

11) 예를 들어, 주석8에서 언급한 지역들이 해당된다.

12)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에서 2020년부터 발생한 쿠데타를 일컫는 말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 문제는 서아프리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임기대 2023).

공급망의 경제적 역동성 등의 변수와 같은 것들이 매 순간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생산해 내는 장소이다. 아비장은 서구의 발달 경로를 선행적으로 모방하지 않고, 모바일 기술 도약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네트워크와 전통적 커뮤니티 구조를 접착시킴으로써, 평평한 네트워크 이론이 포착하지 못했던 ‘공간적 두께’와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되고 있다.

공간의 물리적·지정학적 중첩이 아민의 관점을 통해 선명해진다면, 그 공간 내부에서 살아가는 인간 주체들의 실천과 문화적 혁신은 론·수잔 스콜론(2004) 부부의 넥서스 분석(Nexus Analysis) 방법론을 통해 더욱 정교하게 해명된다. 스콜론 부부는 언어학과 담론 사유를 사회적 실천과 결합하면서,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담론이나 초국적 흐름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 순간을 실천의 넥서스(Nexus of Practice) 혹은 참여의 장(Site of Engagement)으로 명명했다. 이들은 넥서스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역사적 신체(Historical Body), 상호작용 질서(Interaction Order), 그리고 장소의 담론(Discourses in Place)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아비장의 구체적 현실에 투사해봄으로써, 오늘날 아프리카의 청년 세대가 디지털 플랫폼과 초국적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통해 어떻게 새로운 주체성과 문화적 감각을 형성해 가는지를 보고자 한다.

먼저, ‘역사적 신체’의 차원에서 아비장 청년들은 탈식민지 이후의 경제적 정제, 서구 중심적 국제 질서에 의한 소외, 그리고 지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온몸으로 겪어낸 주체들이다.¹³⁾ 이들의 신체에는 식민지적 기억과 포스트콜로니얼 국가 체제가 강요하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저항감이 깊이 각인되어 있다. 동시에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에 주저 없이 접속하는 개방성을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결핍과 잠재성이 청년들의 신체적 성향으로 축적되어 있기에, 이들은 기존의 고정된 질서를 전복할 내부적 동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

둘째, ‘상호작용 질서’라는 맥락에서 아비장 청년 세대의 주체성은 진

13) 이는 아비장은 물론 서아프리카를 비롯한 아프리카 전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로 흔히 MZ세대의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로 불린다. 이들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하위문화 기반으로 한 ‘아래로부터의 초국적 연대 운동’을 지향한다(교수신문 2025.06.12.)

공 상태가 아니라, 급격히 팽창하는 도심의 거리, 시장,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구체적인 마주침의 장에서 매번 발생한다. 서로 다른 종족과 언어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도시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소통하기 위해 매일 수행하는 협상과 연대 방식이 곧 새로운 상호작용 질서를 형성한다. 이는 기존의 영토 중심적 국가 질서나 부족 중심의 위계를 무력화하는 실천적 유대망과도 같다.

마지막으로, '장소 담론'이다. 아비장이라는 공간에는 과거 식민지 언어의 잔재, 지역의 지배적인 상업적 링구아 프랑카, 사비르(sabir),¹⁴⁾ 토착어,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유입되는 글로벌 대중문화(힙합, 소셜미디어 등)의 담론들이 물질적 기호가 되어 거리에 유통된다. 아비장 청년들은 이 이질적인 담론의 선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시공간 속에서 단단하게 엮어 매듭짓는다. 그 대표적인 문화적 결정체가 바로 아비장 거리 언어이자 청년 문화인 '누시'이다. 누시는 프랑스어의 문법 구조 위에 코트디부아르 현지어의 어휘를 엮고, 거리 문화의 감각을 결합하여 지배어인 표준 프랑스어를 비틀고 전복한다. 스콜론의 관점에서 누시는 단순한 언어적 변종이 아니라 청년들의 역사적 신체와 거리의 상호작용 질서, 그리고 초국적 담론의 유통이 한 시공간에서 교차하여 폭발적인 사회적 에너지를 분출한 '실천의 넥서스'이다. 하위문화의 은어로 출발한 '누시'가 이제는 코트디부아르 전체의 국가적 정체성이자 대안적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강력한 주체성의 담론으로 증폭된 현상은, 흐름이 밀집하는 결절점에서 역사적 전환이 발생한다는 넥서스의 논지를 잘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3. 아비장 넥서스의 다층적 분석

이번 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아쉬 아민의 '관계적 장소성'과 '비대칭적 강도', 그리고 스콜론 부부가 언급한 넥서스 분석의 세 가지 축을 분석 도

14) 주로 지중해에서 사용되는 링구아 프랑카이지만, 아비장에서 레바논 디아스포라가 사용하는 언어를 지칭하기도 한다(임기대 2026).

구로 삼아, 현대 서아프리카의 거점 도시 아비장의 다층적 구조를 문화, 이주, 그리고 권력 및 디지털의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문화 넥서스

문화 넥서스는 글로벌 흐름과 지역 자원이 특정 공간에 집약될 때, 단순히 고정된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외부 문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새로운 변종을 생성하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이는 포스트식민주의와 문화이론에서 지배와 피지배, 혹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문화들이 충돌하고 뒤섞이면서 새로운 제3의 정체성이나 가치가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공간을 연구할 때 유익해 보인다.¹⁵⁾ 이를 통해 아비장의 문화 지형을 조망해보면, 도시에서 발흥한 누시(Nouchi)와 쿠페-데칼레(Coupé-Décalé)가 단순한 하위문화적 유행을 넘어 경계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낸 문화 넥서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문화 넥서스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층적이다. 그것은 단순히 동시에 사용되는 언어, 밈(meme), 틱톡(TikTok) 등과 같은 감각의 언어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먼저, 언어 체제의 혼종화가 낳은 결정체인 ‘누시’는 스콜론 부부가 제시한 세 가지 축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누시는 1980년대 아비장의 거리 청년들이나 부랑자들 사이에서 생겨난 비밀스러운 은어였으나, 현재는 아비장 전체, 나아가 코트디부아르 전체를 관통하는 도시 공용어로 자리 잡으며, 표준 프랑스어를 대체하고 있다(Franck Ballanger, Thomas Sellin 2024). 이 언어는 식민 지배의 유산인 프랑스어의 문법적 틀 위에 코트디부아르의 토착어(디올라어, 바울레어 등) 및 이웃 나라의 언어적 요소가 충돌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본래는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이 생존과 연대를 위해 쓰던 통신 보안용 언어였지만, 아비장이라는 거대 도시 안에서 계층과 민족을 묶어주는 강력한 소통 도구로 사용되며 진화해갔다. 오늘날 누시는 문학, 미디어, 마케팅의 영역까지 장악하며 청년 세대의 계층 이동을 위한 자원이자¹⁶⁾ 하나의 사회적 기술

15) 이 개념들은 메리 루이스 프랫(M. L. Pratt)의 ‘접촉지대’나 호미 바바(H. Bhabha)의 ‘제3의 공간’과 같이 문화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다.

(savoir-faire)로 기능하고 있다. 아비장 청년들은 프랑스어를 정형화된 형태로 수동 소비하지 않고, 스스로를 번역하고 연결하는 '매개 주체'로 재정의하며 도시의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해 간다. 자연스럽게 내전의 원인이었던 '이부와리테'¹⁷⁾ 정체성 논쟁 또한 희석시키게 한다.

둘째, '쿠페-데칼레'는 2000년대 초반 코트디부아르 내전¹⁸⁾이라는 극심한 정치·사회적 위기 속에서 탄생한 폭발적인 댄스 음악 장르이자 청년 하위문화이다. 흥미롭게도 이 장르의 시초는 아비장이 아닌, 2000년대 초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코트디부아르 출신 이주민인 두크 사가(Douk Saga)를 비롯한 '제트 세트'(jet-set)¹⁹⁾에 의해 시작되었다. 파리의 클럽에서 유행한 문화가 미디어와 미디어를 타고 역으로 아비장으로 유입되어 대폭발을 일으킨, 전형적인 초국가적 유통 인프라의 산물인 셈이다. 쿠페-데칼레라는 말 자체는 누시로 (돈을) 잘린(Coupé), (도망친/사라진(Décalé)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내전의 우울함과 경제적 결핍 속에서 청년들은 오히려 값비싼 명품 의상을 입고 돈을 공중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는 현실의 비참함을 과시와 유희라는 역설적 태도로 재의미화하여 경계 자체를 미학화한 사례에 해당된다. 현재 틱톡,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독특한 댄스 스텝과 리듬이 국경을 넘어 순환하면서, 아프리카 MZ세대의 감각 체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대중문화 장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쿠페-데칼레는 내전의 기억을 담은 역사적 신체가 디아스포라와 플랫폼이라는 상호작용 질서를 통해 과시와 유희의 장소 담론으로 나타난 또 다른 실천의 텍스트와도 같다.

16) 오늘날에는 청년층은 물론 남녀노소,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치어를 구사하며 코트디부아르의 핵심어로 자리하고 있다(Franck Ballanger, Thomas Sellin 2024).

17) 코트디부아르의 문화적·정치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코트디부아르 순혈주의'를 상징하는 용어이다(임정혜 2020). 하지만 정치 권력 쟁취 과정에서 외국인 배척, 혈통 중심의 국수주의로 악용된 사례로 꼽힌다.

18)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체성과 관련하여 발생한 코트디부아르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였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문제가 부각됐지만 외국인 차별, 경제 문제, 종교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내전이다(임정혜 2020).

19) '제트 세트'는 두크 사가 이외에도 Le Molare, Lino Versace, Serge Defalet, Boro Sangu, Solo Béton, Chacoule, L'As des As, Abdoul de Bamba로 구성되었다(Usher Aliman 2019).

문화 넥서스는 아프리카 MZ세대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청년들은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 언어, 혼종 음악, 플랫폼 서사를 통해 도시 감각 자체를 재구성하는 능동적 창작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체성은 이전 세대가 주창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보다 ‘나는 무엇을 번역하고 연결하는가?’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그들의 혼종적 실천은 그 자체로 서구 중심주의를 탈중심화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비장은 누시의 언어적 혼종성, 쿠페-데칼레의 음악과 신체적 혼성성(전통 리듬과 글로벌 일렉스톤, 패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아비장의 접촉지대와 파리 디아스포라와 아비장을 잇는 초국가적 네트워크²⁰⁾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프랑스어는 받아들이지만 청년들은 주류 프랑스어에 대한 언어적 변형체 ‘누시’로 생각하고, 내전과 빈곤의 고통을 ‘쿠페-데칼레’를 통해 유희와 과시로 지워버리려는 MZ세대의 저항, 문화적 창조의 변이 과정을 각각 확인할 수가 있다.

3.2. 이주 넥서스

아비장은 단순히 고착된 정착 공간이 아니라, 서아프리카 전역의 인구 이동과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교차하고 충돌하는 곳이다(임정혜 2020). 본 연구가 주목하는 아비장의 이주 네트워크는 평면적이거나 균등하게 분산되지 않으며, 아쉬 아민이 강조한 공간적 밀도의 격차와 비대칭적 권력²¹⁾(asymmetrical power)을 선명하게 노출한다(Abeer Allahham 2021). 이 넥서스의 양극단에는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를 지탱하는 기층 노동력인 부르키나베²²⁾ 이주민과 유통과 제조업 자본을 장악한 경제적 엘리트인 레바논계 디아스포라가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아비장이라는 동일한 공간 내부에서 각각 아자메(Adjamé)의 비가시적 노

20) 과거에는 파리에서 만들어진 흐름이 아비장의 클럽 골목으로 흘러 들어와 폭발했고,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TikTok, YouTube)을 타고 서아프리카 전체 청년의 삶의 리듬을 지배하고 있다.

21) 특정 소수(대도시나 자본 권력 등)에 공간적 권력이 집중되며, 주변부 지역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관계를 일컫는 말이다.

22)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원어로는 ‘Bourkinabé’라고 부른다. ‘정직한 사람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현지어이다.

동과 마르코리(Marcory)²³⁾의 가시적 자본이라는 극단적인 공간 분절을 통해 하부 권력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도시 인구의 압도적 다수이자 코트디부아르 전체 이주민의 약 56%를 차지하는 부르키나베에게 아비장은 삶의 완전한 종착지가 아니다. 이들의 시선과 자본은 자국의 가족 네트워크를 향해 끊임없이 순환하는 초국적 이동성을 지닌다. 이들의 이주 역사는 프랑스 식민 당국이 카카오 플랜테이션과 아비장-니제르 철도 건설을 위해 오토볼타(Haute Volta)의 행정 구역을 해체하고 노동력을 강제 유입시켰던 식민지 역사에 뿌리를 둔다. 1932년부터 1947년까지 행정 구역 병합과 분리를 거치며 이들은 이중적 정체성을 강요받았으며(임정혜 2021), 초대 대통령 우푸에-부아니(Félix Houphouët-Boigny, 1905-1993) 정권의 경작자 우선주의 개방 정책 아래 경제 성장의 증추로 공생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앙리 코난 베디에(Henri Konan Bédié, 1934-2024) 정권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순혈주의에 기반한 배타적 민족주의 담론인 '이부와리테(Ivoirité)'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들의 이동성은 거대한 제도적 장벽에 부딪혔다(임정혜 2021). 투표권 박탈과 토지소유권 배제는 이들을 하루아침에 법적 권리가 없는 외국인 '타자'로 전락시켰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사헬 지역의 기후 위기(사막화, 식량 위기 등)와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를 휩쓴 연쇄 쿠데타는 과거의 자발적 경제 이주를 테러와 살육을 피한 비자발적 안보 이주로 치환시키며, 이로 인해 새로운 지역주의 양상이 심화되었다(임기대 2024). 2026년 현재 아비장의 아자메(Adjamé) 구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규모 부르키나베 난민들은 대다수가 서류 없는 이주민(Sans-papiers) 상태로 도시의 비공식 경제 영역(노점상, 운송 보조, 도시 농업)에 편입된다. 이들은 아자메의 버스 터미널(Gare Routière)이라는 비공식적 결절점을 중심으로 고향으로의 송금과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도시를 움직이는 필수적 '다수자'로 기능하지만, 시 당국의 도심 정비 사업과 철거 정책 앞에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나는 '비가시적

23) 이외에도 코코디(Cocody)와 트레슈빌(Treichville) 등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두 이주민 집단의 주요 거주지만을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소수자'라는 구조적 모순을 체현하고 있다.

반면, 19세기 말 프랑스령 서아프리카(AOF)²⁴⁾ 시절 방역 사각지대의 황열병 투쟁을 거치며 정착한 레바논계 이주민의 이동은 고도화된 글로벌 공급망, 금융 자본의 유입, 그리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프라와 결합해 있다. 초기 레바논 마론파²⁵⁾ 기독교인 중심의 소매업·중개업 이주로 출발하여, 1970년대 레바논 내전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피해 유입된 시아파 무슬림 농민 세대까지 가세하면서, 이들은 현재 코트디부아르 소비재 제조업 및 유통 자본의 50-60%, 일상 소매망의 90% 이상을 장악한 경제적 헤게모니의 중심이 되었다. 이들의 핵심 거점인 마르코리 구역은 국가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는 독특한 상업 요새의 성격을 띤다. 2000년대 초반 내전과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상점이 약탈당했던 트라우마를 겪은 레바논 공동체는, 마르코리 내부에 높은 담장을 쌓고 사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부(현지인 사회)와 스스로를 격리하는 방어적 건축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현지 중산층의 삶을 규정하는 대형 쇼핑몰 캡 슈드(Cap Sud)와 같은 가시적 자본을 과시하면서도, 일상에서는 현지인과의 접점을 철저히 차단한다. 즉, '이부와리테'가 야기하는 정치적 폭력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정치권력과는 거리를 두면서 마르코리라는 해방구 안에서 실리만을 취하는 고도의 전략적 타자화(Strategic Othering)를 생존 문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마르코리의 시아파 모스크는 단순한 예배당을 넘어 비즈니스 정보가 교환되고 위기 대응 전략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의 중심 공간이다. 특히 공동체 내부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의 20% 종교 헌금인 '쿰스'(Khums)²⁶⁾는 국가 인프라가 마비된 환경 속에서 자체적인 병원, 학교, 도서관을 건립하는 공동체적 복지 자본(사회적 안전망)이자, 내전기 긴급 구호 기금으로 기능한다. 나아가 이 자본은 초국가적(Transnational) 네트워크를 통해 레바논 본국의 가족

24) 1895년부터 1958년까지 프랑스 식민지 행정의 연합체이며, 해당 국가로는 세네갈, 말리, 기니, 코트디부아르, 베냉,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니제르가 해당된다. 프랑스 본토의 8배에 해당되며, 수도는 세네갈의 생루이와 이후 다카르에 있었다.

25) 레바논과 시리아의 기독교 공동체로 동방 가톨릭에 속하는 교파이다. 아랍국가 레바논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마론파 기독교인이어야 한다.

26) 시아파에서 소득의 20%를 종교 공동체에 바치는 것을 일컫는다.

에게 송금될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Hezbollah) 연계 비공식 금융 기구인 알카르드 알하산(AQAH) 등과 연동되어 무기·마약 밀수 및 국제 안보 지형의 자금줄로 전용되기까지 한다(임기대 2026).

이와 같이 아비장의 이주 넥서스는 스콜론 부부가 제시한 역사적 신체(식민지 강제 이주와 본국 내전의 기억)가 어떻게 도시 내부의 상호작용질서(아자메와 마르코리)를 형성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아비장은 이주민의 노동과 자본에 의해 전적으로 작동하고 재편되는 이주 도시이면서도, 혈통 중심의 이부와리테 담론과 도심 재생이라는 권력 기제를 통해 이주민들을 영원한 '이방인'으로 묶어두고 타자화한다. 하층 노동의 부르키나베 흐름과 상층 자본의 레바논 네트워크가 단일 도시 공간 내에서 비대칭적인 강도로 격돌하며 상호 의존하는 이 구조적 모순이야말로 아비장의 하부 권력 지형을 규정하는 주요 넥서스적 실체가 될 것이다.

3.3. 권력 넥서스

현대 아비장의 도시 공간은 과거의 식민지적 유산과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의 역학이 고밀도로 교차하는 전형적인 권력 넥서스(Power Nexus)로서의 성격을 내포한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²⁷⁾가 아비장을 서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로 호명하며 상륙한 현상은 과거 식민지 시절의 군사적·물리적 억압이 디지털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코트디부아르 ICT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설립 및 발전을 지원하는 프랑스계 자본은 아비장 청년 세대를 배달, 퀵서비스, 디지털 아웃소싱 등의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거 흡수하며,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의 종속적 하위 주체로 재편하고 있다.²⁸⁾ 이는 미셸 푸코가 고찰한 근대적 규율

27) 2016년 1월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렌치 테크 아비장'을 인증받았으며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더불어 유일하다.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는 프랑스 정부가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구축한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이다(오테현 2018).

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La French Tech Abidjan(<https://frenchtechabidjan.ci/>)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마크롱 정부에서는 기존의 아프리카 정책을 청년과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가고 있다.

권력의 공간적 한계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어떻게 극복되는지 입증하는 사례이다(미셸 푸코 2020). 근대의 판옵티콘이 감옥이라는 격리된 공간 내에서 신체를 포획했다면, 현대 아비장의 플랫폼노동은 공간적 장벽을 해제한 채 스마트폰의 알고리즘적 감시(실시간 추적, 평점제 등)를 통해 주체의 내면과 일상적 신체 실천을 규율한다.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은 시공간 제약이 소거된 모바일 판옵티콘으로 작동하며, 고용 안정성이 부재한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프랑스 자본의 독점적 메커니즘에 예측을 심화하는 플랫폼(Platform) 신식민주의의 통제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아비장이라는 권력 넥서스의 억압성은 단순히 구식민 권력의 재진입에 그치지 않고, 신흥 패권국인 중국과의 공간적 중첩을 통해 한층 다층적인 지정학적 지형을 형성한다. 아비장의 제3교량과 아비장 자율항구(PAA) 확장 공사, 그리고 서아프리카 전역을 관통하는 5G 광케이블망 등 도시의 거대한 물리적 뼈대는 중국 국영기업과 화웨이 자본 및 기술로 축조된 하드웨어적 토대 위에 서 있다. 반면 그 인프라의 내부를 흐르는 디지털 데이터와 금융 거래, 스타트업 생태계는 프랑스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와 자본이라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작동된다. 기존의 일차원적 지정학이 영토적 점령 여부에 주목했다면, 넥서스적 관점에서 포착한 아비장은 중국이 구축한 인프라(하드웨어) 위에서 프랑스의 플랫폼(소프트웨어)이 구동되는 복합적 분업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아비장의 청년이 중국제 스마트폰과 중국산 통신망을 매개로 프랑스계 배달 앱을 켜고 노동을 수행하는 일상적 풍경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도시의 가장 미시적인 지점에서 권력의 중첩적 결절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자본이 깔아놓은 중첩적 규율 속에서도 아비장의 청년 세대는 무력한 피지배자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들은 이들 시스템의 모순과 틈새를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자신들만의 생존 문법을 만들어 간다. 이들은 거대 자본과 제도권이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비공식 영역을 기술 발전의 내부로 이식시키며 독특한 저항 양식을 구축한다. 프랑스계 주류 은행 계좌가 없는 대다수의 청년은 통신사 기반의 오렌지 머니(Orange Money)나 MTN 모바일 머니²⁹⁾ 등을 다중으로 교차 이용함으로써 글로

29) 아비장 등 서아프리카의 경제를 지탱하는 두 대형 모바일 머니는 시중은행의 문턱을

별 금융 자본의 수수료 체계를 우회한다. 동시에 프랑스로 설계된 공식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뒤편에서 청년들은 자신들만의 도시 속어인 누시를 도구 삼아 왓츠앱이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상에 독자적인 비공식 소셜 커머스 망을 형성한다. 이는 서구식 알고리즘의 감시망이 도달하지 못하는 언어·문화적 암시장을 자발적으로 개척한 결과이다.

아실 음벰베(Achille Mbembe 2000)는 포스트식민 주체들이 지배 권력의 규율에 단순히 복종하거나 전면적으로 혁명적 저항을 전개하기보다, 권력의 코드를 가로채고 조롱하며 변형(Tricking the system)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비장의 청년 세대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알고리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라, 시스템의 빈틈을 읽어내어 초국적 금융과 거리의 비공식 경제를 능동적으로 매개하는 포스트식민적 생존 주체이자 '브로커'(Broker)와도 같다. 결과적으로 아비장이라는 권력 넥서스는 단순한 가혹한 착취와 압제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배 권력의 틈새를 파고드는 청년들의 미시적 전용 전략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디지털 주권이 획득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역동적인 결절 공간이 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21세기 글로벌 패러다임인 이동성과 디지털 네트워크, 그리고 초국적 이주 속에서 세계의 흐름이 고밀도로 집약되는 결절 공간에 주목하고, 이를 사유하기 위한 실천적 틀로서 '넥서스 인문학'(Nexus Humanities)을 제안하였다. 들뢰즈의 리좀이나 네트워크론이 간과한 공간적 두께와 비대칭적 강도를 해명하고자 아쉬 아민의 관계적 장소성과 스콜론 부부의 담론적 넥서스 분석을 결합하였으며, 이를 서아프리카의 거점 도시 아비장의 문화·이주·권력 지형에 투사하여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본 연구가 도출한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넘어 '휴대폰 번호가 곧 은행 계좌'가 되게 만든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일컫는다. 아비장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이다.

첫째, 문화 넥서스의 층위에서 아비장의 청년 세대가 발흥시킨 거리 언어 ‘누시’와 대중문화 장르 ‘쿠페-데칼레’는 단순한 하위문화적 유행이나 프랑스어의 파생형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누시는 식민 지배의 유산인 표준 프랑스어를 토착어로 비틀고 전복하여 계층과 민족을 결속하는 새로운 도시 공용어이자 사회적 자원이 된 실천의 넥서스이다. 파리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매개로 유입된 쿠페-데칼레 역시 내전과 빈곤의 트라우마를 과시와 유희라는 역설적 미학으로 재의미화하며, 아프리카 MZ세대의 독자적인 주체성과 새로운 형태의 현대성을 형성하는 강력한 문화적 결정체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주 넥서스의 층위에서는 기층 노동력을 구성하는 부르키나베 이주민과 유통·제조업 자본을 장악한 레바논계 디아스포라의 비대칭적 충돌을 가시화하였다. 기후 위기와 사헬 지역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비자발적 안보 이주민으로 전락한 부르키나베는 아비장의 아자메 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비공식 경제를 지탱하는 비가시적 소수자의 실태를 드러낸다. 반면, 마르코리의 레바논 공동체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담론인 ‘이부와리테’의 폭력을 우회하기 위해 사설 요새화와 전략적 타자화를 감행하며, 종교 헌금 ‘쿰스’ 체제와 초국적 금융망을 통해 국가 권력을 우회하는 독자적 생존 전략을 구축하고 있었다. 단일 도시 공간 내에서 하층 노동의 흐름과 상층 자본의 네트워크가 격돌하는 이 구조적 모순이야말로 아비장의 하부 권력 지형을 형성하는 넥서스적 실체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권력·디지털 넥서스의 층위에서는 중국이 만든 물리적 인프라 위에서 프랑스의 플랫폼 자본이 구동되는 제국주의적·지정학적 권력의 중첩 구조를 규명하였다. 스마트폰 알고리즘을 통한 ‘모바일 판옵티콘’의 통제 속에서도 아비장의 청년 주체들은 무력한 피지배자에 머무는 대신 시스템의 틈새를 전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바일 머니의 다중 교차 활용을 통해 글로벌 금융 자본의 수수료 체계를 우회하고, 왓츠앱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상에 누시 기반의 비공식 소셜 커머스 망을 자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서구식 알고리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언어·문화적 암시장을 개척해냈다. 이는 포스트식민 주체들이 지배 권력의 코드를 가로채고 조롱하며 아래로부터의 디지털 주권을 획득해가는 역동적인 생성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아비장은 서구 중심적 네트워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종착지가 아니라, 다층적 압제와 지정학적 패권이 교차하는 틈새 속에서 청년 주체들이 능동적 주체로 등장해 새로운 대안을 생산해내는 변이 공간이다.

본 연구는 2026년 2월 수행한 1차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론으로서 필드워크의 시공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2026년 7, 8월로 예정된 2차 심층 현지 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미시적 실천과 모바일 이용 패턴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더 다양한 넥서스적 요소를 발굴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 갈 것이다.

참고문헌

- 미셸 푸코(2020).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오생근 역, 나남.
- 오태현(2018). 프랑스의 스타트업 정책, La French Tech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KIEP 멀티미디어 자료>.
- 임기대(2023). 사헬지역 테러집단과 '쿠데타 벨트'에 주는 함의, <인문학연구> 133, 191-211쪽.
- 임기대(2024). 새로운 지역주의 등장: 북서아프리카의 지역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 71, 117-142쪽.
- 임기대(2025).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MZ세대의 정체성 변화와 왜곡되는 범아프리카주의, <한국프랑스학논집> 130, 149-175쪽.
- 임기대(2026). 연합뉴스, 헤즈볼라의 서아프리카 자금줄 레바논 이주민 네트워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331031200898>(검색일: 2026.04.09.)
- 임정혜(2020). 코트디부아르의 이주역사와 국가 정체성의 문제,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8, 267-288쪽.
- 임정혜(2021). 부르키나페의 코트디부아르로의 이주역사, <프랑스어문교육> 72, 311-329쪽.
-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2003).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김재인 역, 새물결.
- 김환석(2024). 브뤼노 라투르, 커뮤니케이션북스.
- 교수신문, “‘아프리카 MZ’, 새로운 국가지도자로 떠오르다”,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36501>(최종검색일: 2025.06.12.)

- Abeer Allahham(2021). "Contemporary urban utopia, a query trapped in the capitalist kaleidoscope: Is there an alternative?" *Open House International*, 46(1), pp.2-17.
- Achille Mbembe(2000). *De la postcolonie. Essai sur l'imagination politique dans l'Afrique contemporaine*, Paris, Karthala.
- Ash Amin(2002). Spatialities of Globalisation. *Sage Journal*, 34(3), pp.385-399.
- Ash Amin(2004). "Regions Unbound: Towards a Relational View of Regional Policy",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1(1), pp.33-44.
- Ash Amin & Nigel Thrift(2002). *Cities: Reimagining the Urban*, Polity.
- Franck Ballanger, Thomas Sellin, "Francophonie: comment le nouchi, cet argot des quartiers d'Abidjan, enjaille peu à peu la langue française", franceinfo, <https://buly.kr/1RGrHgd>(검색일: 2026.05.19.)
- Scollon, R., & Scollon, S. W.(2004). *Nexus Analysis: Discourse and the Action*. Routledge.
- Usher Aliman, "Côte d'Ivoire: l'Histoire du coupé-découpé", MusicAfrica. <https://staging.musicinafrica.net/fr/tag/le-molare/>(검색일: 2026.05.23.)

필자 소개

성 명 임기대

소 속 부산외대 프랑스어과/아프리카연구소

주 소 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A520

전자우편 dlarleo@hanmail.net

I Abstract

A Nexus Humanities Approach to the West African City of Abidjan

Lim, Gi-da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proposes “Nexus Humanities” as a framework to transcend territorial centralism and dichotomous structuralism, thereby exploring the nodal spaces of global fluidity. Criticiz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patial theories that reduce Deleuze’s rhizome or network concepts to flat, horizontal flows, this paper provides a multilayered analysis of Abidjan—a pivotal West African hub—based on field research conducted from 2019 to 2026. This is achieved by combining Ash Amin’s “relational placeness” with Scollon and Scollon’s “mediated discourse analysis (nexus analysis).”

First, within the cultural nexu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street language “Nouchi” and the popular culture “Coupé-Décalé” represent an alternative modernity that subverts colonial languages and re-signifies civil war trauma into playful expression.

Second, within the migration nexus, the paper empirically verifies the asymmetric spatial segmentation triggered by the low-tier labor of Burkinabés in Adjamé and the upper-tier capital of Lebanese-Ivoirians in Marcory, operating under the discourse of “Ivoirité.”

Third, within the power nexus, it examines the mechanisms of control within a “mobile panopticon,” where China’s hardware infrastructure and France’s platform software overlap.

In conclusion, the study observes that despite these multilayered oppressions, Abidjan’s MZ generation is emerging as “postcolonial agents of survival and brokers.” They achieve this by cross-utilizing fintech platforms and leveraging Nouchi-based informal networks to hijack and modify dominant algorithms. By redefining Abidjan as a dynamic, vanguard space

that breaks away from the dichotomy of center and peripher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horizons of African regional studies.

[Key words] Nexus Humanities, Abidjan, Centrism, Cultural Nexus, Migration Nexus, Power Nexus, Broker

투고일 2026. 06. 08 / 심사일 2026. 07. 10 / 게재확정일 2026. 07. 13
--